

문화재 도난범죄 공소시효 25년 되나

김광진 의원 관련법 시효 연장 개정안 발의

대부분 시효 지나 거래돼
처벌 無...개정 필요성 높아
조계종 "도난 감소 기대"

도난문화재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월 9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 보면 먼저 문화재보호법에는 제92조 6항이 신설됐다. 이는 문화재 절취 또는 은닉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25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매장문화재법 개정안에 포함된 신설 제32조 2항은 도굴에 관한 법안으로 역시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정했다. 문화재 절도 행위를 사형에 준하는 중범죄로 본 것으로 우리나라 형법상 최장의 공소시효 기간이다.

이 같은 강력한 법 개정이 이뤄지는 이유는 그동안 법망을 회피해 도난 문화재 거래가 빈번했기 때문

이다. 실제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인사동의 한 옥션에서 회수한 도난 성보문화재의 경우 도난품을 경매에 출품한 사립박물관장 권모 씨에 처벌을 받았지만, 권 씨에게 이를 판매한 12명 중 10명이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처벌받지 않았다.

김광진 의원은 "문화재 관련 범죄는 특성상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적발이 가능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범죄 적발 시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이 같은 법 개정 움직임에 환영의사를 밝히며 정부차원에서 도난 방지 차원의 대책도 함께 세울 줄 것을 주문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해일 스님은 "문화재 도난 방지를 위해서는 공소시효 폐지가 최선이지만 25년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난 것은 환영한 채로 "시효가 늘어난 만큼 도난사건 감소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가 도난품으로 확인되면 매매를 무효로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해인총림 해인사 9대 방장에 벽산당 원각 스님이 추대됐다. 스님은 3월 19일 주석처를 해인사 퇴설당으로 옮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장 스님 작좌식'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화분으로 축하했다.

해인총림 9대 방장 원각 스님 추대

조계종중앙종회 17일 만장일치로... 19일 퇴설당 입실

'방장 스님 작좌식'
박 대통령 화환 보내



해인총림 해인사 9대 방장에 벽산당 원각 스님(사진)이 추대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는 3월 17일 열린 제201차 임시회에서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추대의 결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중앙종회의원 범보, 장명 스님은 산중총회 구상원 자격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다수 의원 스님들은 인사심의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동의하며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을 동의했다.

이에 따라 법전 스님의 열반으로 공석이었던 해인총림 해인사 최고 어른인 방장은 원각 스님이 맡게 됐다.

공식적인 추대를 받은 원각 스님은 3월 19일 주석처를 해인사 퇴설

당으로 옮겼다. 스님은 오후 2시 그간 주석하던 원당암을 나와 해인사 대종 200여 명과 함께 해인사 선사 스님들의 부도탑과 진영각, 대적광전 등을 참배 후 퇴설당에 입실했다.

퇴설당 입실 직후 원각 스님은 대중들의 인사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스님은 "해인사 대중 스님들이 방장 선출 과정에서 대립을 했지만 산중총회를 통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대중들이 뜻을 서로 모으면 산중 화합을 이루고 종단과 사회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인총림 9대 방장 원각 스님은 1967년 해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해인사, 극락암, 송광사, 상원사, 범어사, 불국사, 상주암 등 전국 선원에서 정진을 해온 수행자이다. 고건사 주지와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해인사 유나 소임을 맡아 평생을 후학을 제정하며 수행에 전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037호 INDEX

시방세계 세월호 1주기 추모 진관 스님 북콘서트

화염만다라 임종 앞둔 환자 돌보는 환희 호스피스 봉사단

사 고

감사편지 공모

-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불축 -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통의 감사편지는 자기 힐링과 더불어 가정과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하는 삶은 곧 불자다운 삶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과 함께 2015년 부처님오신날 불축행사의 일환으로 부처님, 가족, 스승, 친지, 이웃에게 쓰는 '감사편지'를 공모합니다. 감사의 합창을 생활화 하기 위한 이 행사에서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공모 일시 3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원고 매수 200자 원고지 15매 이내 (A4 용지 2매 글자크기 10포인트)

접수·문의 우편(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이메일(iinus@hyunbul.com) 접수 전화 (02)2004-8200

수상 내역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입선 다수로 수상자에게는 주최·후원단체 대표자의 상패와 상금, 부상이 수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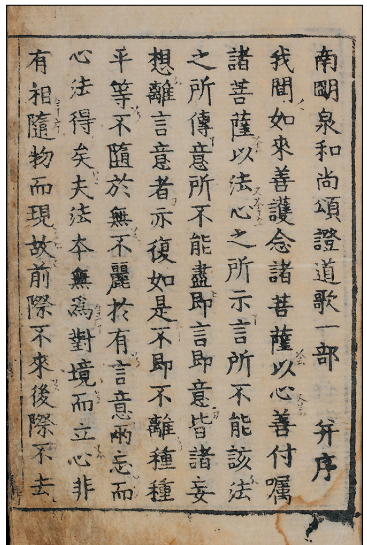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
후원 | 불교여성개발원·동산반야회·공림공양회·여여원

“목판본 오인 증도가”가 직지보다 138년 앞선다

박상국 원장, 21일 보조사상 세미나서 주장

농박도·활자움직임 등
금속활자본 근거 제시

직지 고인쇄博 반박
“활자움직임 같지 않다”



공인박물관 소장 보물758-2호 '남명선화상송중도가'. 박상국 원장은 <직지>보다 빠른 연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주장도 제기된 상황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물인 직지심체요절(1377년 간행)보다 138년 앞서는 금속활자본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월 최고(最古) 금속활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증도가의 목판본이 금속활자본이라는 주장이다. <본지 2월 19일자 보도>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은 3월 21일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이 개최한 월례학술대회에서 "2012년 보물 758-2호(공인박물관 소장)로 지정된 '남명선화상송중도가(南明泉和尚頌讚道歌, 이하 증도가)는 금속활자본'이며 "현존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보다 138년 앞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도가>는 삼성출판박물관, 공인박물관본이 보물로 지정(758-1호, 2호)되었으며 대구의 한 개인이 소장한 본이 문화재 지정 추진 중에 있다. 박 원장은 공인박물관본과 삼성출판박물관본, 대구 개인소장본을 6개월 간 연구한 결과 공인박물관본에서 금속활자본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먼저 박 원장은 스면 테두리 인쇄가 깨끗한 점 스활자 높낮이가 달라 글자간 농담 차이가 심한 점 스활자가 움직여 인쇄가 밀린 흔적이 있는 점 스최종자국이 묻혀진 점 스최초 각이 붙은 철편 자국이 보이는 점 스농담 차이로 보사(새로 칠한 것)한 글자가 많은 점 스역시 같은 이유로 획에 가릴만한 흔적이 많은 점 등을 들었다.

박 원장은 "목판본은 평평해 먹이 골고루 찍히는 반면 활자가 밀리거나 철편 현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그동안 목판본임을 밝혀주는 중요한 근거였던 고종26년(1239년) 무신정권 수장최이(崔怡)의 증도가 발문에도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증도가는 "어시모공 중조 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용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무스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예코 도자기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주자본을 바탕으로 다시 판각해서' 같이 전하게 한다' 발문을 통해 번각본으로 여겨졌다.

박 원장은 "주자(활자)본으로 다시 새겨 오래도록 전해지게 하고자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직지>관련 기관인 청주 고인쇄박물관 측은 이 같은 박 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황정하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공인박물관 소장본이 삼성출판박물관과 개인 소장 목판본보다 종이의 질과 인쇄 상태가 가장 좋지 않아서 나오는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황 연구실장은 스활자본의 특징인 글자 흠집이 반복해서 나타나지 않는 점 스세 개의 소장본 테두리 흠집까지 모두 동일한 점 스글자의 끊어짐과 간격 등이 세 개의 소장본이 동일한 점 스명시된 11명의 각 수 이름이 역시 목판인 대장경 각 수로도 이름을 올린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황 연구실장은 "금속활자본이라면 활자의 흠집 또한 각 페이지에 같이 나타나야 함에도 동일한 것이 없다. 이는 목각임을 의미한다"며 "또 쇠통자국 등도 목각본에서 인쇄상태가 고르지 않으면 유사하게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발문 해석에 대해서도 황 학예연구실장은 "금속활자는 주조했다는 표현을 쓴다. '새겼다'는 구문은 대상이 목판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도자기 에코컵

범어가 담긴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 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용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쓰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예코 도자기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 차 마시기에도 안심맛춤!

종류	컵종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마 음 범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대장부 범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 날개 5,000원 • 2개 SET 9,000원 • 3SET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